

# 비교공시 효과?... 은행 예대금리차 1년새 0.5%p 줄었다

국내 은행 예대금리차 1.62%p  
시중은행보다 지방은행 변동성 ↑

주담대 증가에 금융당국 규제 나서  
예대금리차 하락세, 당분간 주춤

국내은행들의 예대금리차(여·수신상품 간의 금리 차이)가 1년 만에 0.5%포인트(p)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및 5대 지방은행(부산·대구·경남·광주·전북)의 예대금리차는 지난 5월 말 기준 연 1.62%p(신규 취급액 기준)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 기록한 2.14%p보다 0.52%p 내린 수준이다.

예대금리차는 수신(은행이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는 영업 행위) 금리와 여신(은행이 고객에게 돈을 빌려주는 영업 행위) 금리 간의 차이를 수치화한 것이다. 통상 예대금리차가 작을수록 소비



ChatGPT에 의해 생성된 '은행 예대금리차 비교' 이미지.

자에게 유리한 금융 환경이 조성된다.

정부는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해 지난 2022년 8월부터 소비자가 국내 은행의 기간별 예대금리차를 동시에 조회할 수 있도록 했고, 은행권 예대금리차는 지난해부터 줄었다.

지난 5월 기준 10개 은행의 예대금리차는 전년 동월 대비 0.11~0.96%p 줄

어 10개 은행 모두 전년 대비 하락을 기록했다. 변동성에서는 서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지난 2023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의 예대금리차에서 시중은행은 서로 비슷한 수준의 변동성을 보이며 월평균 0.14%p(신한 0.14%p, 국민 0.13%p, 하나 0.15%p, 우리 0.14%p, NH농협 0.

16%p) 변동했다.

같은 기간 지방은행의 예대금리차는 월평균 0.25%p(대구 0.23%p, 부산 0.11%p, 광주 0.35%p, 전북 0.39%p, 경남 0.19%p) 변동했다. 변동성이 컸던 전북은행은 시중은행의 3배에 달하는 변동을 보였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별 특성에 따라 취급하는 상품이 다른 만큼, 은행마다 예대금리차 변동성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면서 "중·저신용자 대출 및 정책금융상품 취급이 잦은 일부 지방은행이나 인터넷은행은 해당 상품의 수요 및 공급에 따라 예대금리차가 크게 움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러한 예대금리차 축소세는 당분간 주춤할 전망이다.

오는 9월 주택담보대출 스트레스 DS 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도입을 앞두고 주담대 수요로 대출이 빠르게 늘자, 부채 증가를 우려한 금융당국이 금리를 예외주시하고 있어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국내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보다 6조원 늘어난 1115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신용·기타대출 잔액은 전월보다 3000억원 줄었지만, 주담대 잔액이 6조 3000억원 늘어 전체 가계대출 잔액을 끌어올렸다.

지난 2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성급한 금리인하 기대와 국지적 주택가격 반등에 편승한 무리한 대출 확대는 안정화되던 가계부채 문제를 다시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지난 3일에도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이 "최근의 일부 과열 분위기에 편승해 무리하게 대출을 확대하지 말아달라"라며 "연초 각 은행이 설정한 경영목표 범위 내에서 가계대출이 취급되도록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은 주담대 금리를 0.1~0.2%p 인상했다. 다른 은행들도 금리 인상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 KB, 요양사업 주춤... 후발주자 '신한' 맹추격

KB라이프, 요양연계 부가서비스  
입소 우선권 제외상품 개정 출시

신한라이프, 실버타운·요양원 등  
요양 관련 신사업 추진 가속화

요양사업 선두 자리를 놓고 보험사 간 경쟁이 치열하다. 선두주자인 KB라이프생명이 요양시설 입소우선권 상품 출시가 주춤하면서 후발 주자인 신한라이프의 매서운 추격을 받고 있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B라이프생명은 '노인복지주택 입소 우선권'과 연계한 종신보험 상품 출시를 철회했다. 대신 입소 우선권을 제외한 상품으로 개정 출시했다.

KB라이프생명은 지난 6월 업계 최초로 요양시설 입소 우선권을 제공하는 부가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었다. 입소 우선권은 상품 가입 후 3년이 경과하거나 장기요양등급 4등급 이상 판정을 받은 피보험자에게 빠른 입소를 지원받

을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다만 해당 부가서비스에 대한 법령해석 검토에 들어갔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 입소권은 법이 정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알선하는 행위, 유인하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어서다.

KB라이프생명은 해당 상품에서 입소 우선권 서비스만 제외한 상품으로 개정 출시했다. 해당 상품 출시 전 배타적 사용권까지 신청했으나 결국 상품 출시 계획 변경에 따라 배타적 사용권 신청을 철회했다.

KB라이프생명 관계자는 "요양연계 상품 부가서비스에 대한 외부 법률자문을 마치고 출시를 계획했다"며 "앞으로 소관부처와 면밀한 사전협의를 통해 고객에게 선택받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후발주자인 신한라이프는 올해 1월 신한라이프케어를 출범해 본격 요양사업 진출을 알렸다. 지난 4일에는 차별화

된 시니어 주거 공간 구축을 위해 KAI ST와 뇌인지과학과와 신경건축학을 적용한 연구계약 협약을 진행했다.

신경건축학은 미국과 유럽 등에서 시니어 주거 시설에 도입되면서 최근 국내 최고급 주거 단지에도 적용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신한라이프케어는 정재승 KAIST 교수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주거 및 요양시설 등 시니어 케어 서비스의 질을 향상한다. 신체적·정신적 노화 회복과 행복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시니어 공간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우석문 신한라이프케어 대표는 "KAIST와의 연구를 통해 개발하는 공간 정체성(Place Identity)은 당사가 만드는 시니어 공간의 디자인 철학과 원칙에 대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신한라이프가 올해 하반기를 시작으로 줄줄이 주아간보호센터와 요양원, 실버타운 건립을 추진하면서 보험

업계 요양사업을 둘러싼 KB라이프생명 경쟁에 불이 붙을 전망이다.

신한라이프는 올 하반기 경기도 내 노인 주간보호서비스센터(데이케어센터)를 오픈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경기 하남 미사 지역에 요양원 1호점 개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남 미사 1호점은 60~7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도시형 요양시설로 건립될 예정이다. 또한 2027년 개소를 목표로 서울 은평구 실버타운 건립도 추진하고 있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데이케어센터는 여가와 재할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임시 상주 가능한 시설"이라며 "요양원은 간병이 필요한 노인 대상으로 입소 생활 요양시설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버타운은 공동체의 삶이나 생활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시니어분들을 대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주형 기자 gh471@



래미안 송도역 센트리폴 조감도. /삼성물산

### 삼성물산 래미안 송도역 센트리폴 2549세대 10월 분양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오는 10월 인천시 연수구에 '래미안 송도역 센트리폴'을 분양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단지는 송도역세권구역 도시개발사업지에 위치해 있으며, 최고 40층 높이 아파트 19개동, 2549세대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블록별 세대수는 1블록 706세대(전용면적 59~84㎡), 2블록 819세대(전용면적 59~95㎡), 3블록 1024세대(전용면적 59~101㎡) 등이다. 단지명은 중심을 뜻하는 '센트럴(Central)'과 랜드마크를 의미하는 '폴(Pole·기둥)'을 더했다.

'래미안 송도역 센트리폴'은 인천발 KTX와 월곶관교선 신설 등 교통 호재로 미래가치가 기대되는 송도역세권구역 도시개발사업지 내 첫 번째 공급 단지이다. 특히 삼성물산이 시행부터 시공까지 맡아서 하는 자체 개발 사업이다. 외관부터 세대 내부·스마트 시스템·조경에 이르기까지 래미안만의 차별화된 특화 설계를 적용했다.

현재 수인분당선을 이용할 수 있는 송도역에는 2025년 인천에서 부산, 인천에서 목포를 잇는 인천발 KTX가 개통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판교까지 환승 없이 이동할 수 있는 월곶관교선도 2027년 개통이 예정되어 있다.

/안성미 기자 smahn1@

## 빈대인 BNK금융 회장 "조직문화에 '바름'의 철학 내제돼야"

하반기 그룹 정기인사 단행  
사고예방·준법윤리 의식 주문

BNK금융그룹은 지난 10일 빈대인 BNK금융그룹 회장이 상반기 실적과 내부통제 점검결과를 반영한 그룹 하반기 정기 인사를 단행하고, 그룹 전 임직원에게 '금융사고 예방'과 '준법·윤리의식 고취'를 주문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빈 회장은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상반기 의미 있는 실적달성과 시장에서의 그룹 주가 재평가는 임직원의 노고 덕분"이라며 "금융사고는 그 내

용과 규모를 떠나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예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빈 회장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목표로 ▲금융사고 예방에 대한 인식전환과 그룹 내부통제 전반의 전면 재점검 ▲성숙하고 냉철한 주인의식을 토대로 한 바른경영 강조 ▲신뢰를 기반으로 한 구성원간 합리적인 의사결정 프로세스 구축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금융사고는 조직의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사안으로 재발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예외 없는 엄정조치를 할 것"이라며 "업무를 비롯한 조직 문화 전반에 '바름'의 철학이 내제 되어

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할 중요한 시점에 불거지는 내부적인 갈등은 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우려와 불신의 빌미를 줄 수 있다"며 "직원 상호간 성숙하고 냉철한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과 자제가 중요하고, 이를 토대로 '바른경영'의 초석을 다지자"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신뢰는 고객과의 관계뿐 아니라 조직의 업무와 구성원 사이에서도 매우 중요한 가치"라며 "구성원간의 원만한 신뢰관계 기반 위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빈대인 BNK금융그룹 회장. /BNK금융

체계를 만들자"고 덧붙였다.

/안승진 기자